

전국驛舍서 ‘풍경소리’ 은은히...

철도·지하철역 1700여곳에 포교계시판 18일 도선사서 설치완료 고불법회 봉행

이제 전국의 모든 철도역과 지하철역에서 풍경소리 포교계시판을 볼 수 있게 됐다. 부산역을 마지막으로 총 603개 철도·지하철 역사에 1,700여개의 풍경소리 포교계시판 설치가 완료된 것.

이에 따라 풍경소리(대표이사 혜자)는 10월 18일 오후 3시 서울 도선사 호국참모원에서 포교계시판 설치 완료를 알리는 고불법회를 봉행한다. 풍경소리 포교계시판은 1999년 9월 서울지하철공사 소속 3, 4호선 115개 역사에 460개가 설치된 이래 철도청과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도시철도공사 소속 지하철 역사로 확대 설치돼, 열독자가 생김 만큼 시민들의 인기를 얻어 왔다.

풍경소리는 이번 고불

법회에서 기존의 계시판 관리와 유지를 비롯해 공공장소에서의 각종 전시와 공연, 책 발간 등을 통한 문화포교를 강화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안을 발표한다. 포교사업의 확대와 조직운영의 효율을 기하는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또 향후 개통되는 광주, 대전 지하철 역사와 고속철도 역사, 신설되는 지하철 역사에 계시판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도 내놓는다. 1,700여개의 계시판을 후원하는 사찰과 단체가 220여 곳에 불과한 문제점도 점차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법회는 계시판 설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온 철도청·서울지하철

공사·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관계자, 풍경소리 작가·이사진, 후원회원, 포교위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법회를 통해 그동안 포교계시판 설치에 힘을 보탠 종단과 사찰,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 소속 불자, 포교위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이용성 사무처장은 “이번 고불법회는 풍경소리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포교사업을 확장하는 선언적 의미를 지닌다”며 “지하철과 철도포교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시도되는 문화포교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박병영 기자

개통될 광주·대전지하철·고속철역도 추진

“스님, 부디 깨달음을 얻으세요. 수행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조계종 선방 수좌스님들을 후원하는 사부대중 모임이 결성됐다. 이름은 ‘금강선림회’. 이 시대 수행자들이 더욱 치열하게 정진해 확충돼야 할 바라는 대중들이 뜻을 모은 것이다. 이미 100여명이 회원으로 동참했고, 교구본사 주지스님들과 상당수 중앙종회의원들도 참여의 뜻을 밝혔다.

금강선림회의 주요 사업은 대중공양. 안거에 들어간 전국 선원을 찾아가 대중공양을 하며, 그 기회에 수좌스님들로부터 참선실수 지도를 받을 생각이다. 대중공양은 동안거, 하안거에 각 2차례씩 모두 네 번을 계획하고 있다.

수좌스님들의 건강과 복지도 쟁긴다. 불자들이 운영하는 병원을 이용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금강선림회 발족 11월에 본격활동

선방 대중공양·간화선 중흥 모색

비용도 일부 부담한다. 금강선림회는 올 11월 시작되는 동안거 때 인사 선방에서 간단한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강선림회는 고정회원제와 후원회로 운영된다.

선원의외에 금강선림회는 또 다른 큰 뜻을 가지고 있다. 바로 간화선 중흥이다. 2005년 봄에 ‘전국민화두짓기 대회’를 개최해 간화선 수행법을 불자와 국민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금강선림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선각스님(종정예경실장)은 “회원들부터 화두를 받아 수행에 몰두하면서 모범을 보이겠다”고 말한다.

금강선림회 회장 김명숙 보살은 “장기적으로는 간화선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를 비롯해 홈페이지 운영, 계간지 ‘선’ 창간 등의 후속작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737-7159 한영우 기자



◊북한에 지원할 가사를 펼쳐보이는 평북협 대표단.

가사50벌·목탁 10개 전달 평북협, 북한스님들에게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타)는 이차 평북협(북한 스님들에게 가사 50벌과 목탁 10개를 지원한다.

평북협은 9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평북협 대표단 22명이 참가하는 개천절 민족공동행사 시 영천 은혜사와 공동 제작한 가사와 목탁을 전달할 예

정”이라고 밝혔다. 법타 스님은 “은혜사 개산대제 경축 의미로 가사 100벌 불사를 진행 중”이라며 “그 중 100벌을 따로 북한 스님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음 방북 때 나머지 50벌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가사 지원은 1991년 LA 관을 사에서 열린 남북한 해외불교지도자 조국통일지원법회 당시 보현회가 보시한 100벌이 최초다. 남동우 기자

불자들, 곳곳서 수해복구 구슬땀 통도사 사부대중 파손건물·딸기밭 보수 선재마을의료회 경남의령서 무료진료

불교텔레비전 열불공양모임(회장 하성심행)과 조계종자원봉사단 부산 경남지부(지부장 이기표)등 회원 100여명은 9월23일 부산 강서구에서 태풍 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 가덕도 놀차마을은 160가구 중 태풍 매미로 인하여 105가구가 피해를 입었다. 열불공양 모임 회원들은 부산 강서구 놀차동 놀차마을에 쌀 10Kg 110 부대와 김치 4Kg 105 박스, 김자, 포교위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이용성 사무처장은 “이번 고불법회는 풍경소리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포교사업을 확장하는 선언적 의미를 지닌다”며 “지하철과 철도포교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시도되는 문화포교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이번 태풍으로 딸기 모종이 물에 쓸려가고 흙에 덮여 딸기 농사를 다시 시작해야 할 형편에 처했다. 통도사 강원스님, 통도사 종무소소임스님, 통도사 큐스티 봉사단, 통도사 청년회 등 100여명은 딸기 하우스 주변 청소, 딸기 모종이 쓸려간 땅 고르기, 완파된 건물 철거, 반파된 건물 수리 등에 비지땀을 흘렸다. 이 밖에도 부산불교신도회 산하 봉사회와 법륜회 개인택시 불자회도 25일 강서구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한편 선재마을의료회(회장 김광수)는 20~21일 이틀간 수해지역인 경남 의령군 봉수면 서암리 일대를 찾아 무료 진료활동을 벌였다.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자 22명이 동참한 이날 진료에서는 지역 주민 100여명을 진료했다.

천미희·김철우 기자



◊사진 왼편은 선재마을의료회 무료 진료 활동을 벌이는 모습. 아래 사진은 통도사 사부대중이 수해복구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펼치는 모습.



◊행사참가자들이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다.

“뺨을 앞으로 쭈 때면 크게 크게 피우러우. 후반전에는 령철이가 빠지고 철승이가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 문지기는 어디 갔네.”

“우리 문지기는 어디 갔네?”

좋은벗들, 북한이탈주민과 통일체육축전

기 소리가 후반전 시작을 알린다. 전반전의 부진을 만회하려고 애쓰지만 예선에서 한라산팀을 3:2로 이기고 결승에 올라온 두만강팀에게 부전승으로 올라온 백두산팀은 역부족이다. 결과는 두만강팀의 4:1 대승. 축구 우승은 두만강팀에게 돌아갔다. 북한이탈주민 300여명이 운동 경기를 하며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정토회 산하 국제평화·인권·난민 지원을 하는 좋은벗들(대표 유수)이 ‘제1차 통일체육축전’을 개최했기 때문이다. 추석맞이 합동차레로 시작된 통일

체육축전에서는 한라산(북:서울 송파구·노원구, 남:서울 정도법당 신도회), 압록강(북:서울 양천구·강서구, 남:서울 정도법당 청년회), 두만강(북:하남원 35~40기, 남:부산·울산 정도법당), 백두산(북:전라·경북·충청·강원, 남:대구·대전·청주·제천·마산 정도법당) 4개 팀이 축구, 축구, 피구 등에서 경합을 벌였다. 축구 경기 결승에는 각각 두만강팀과 압록강팀을 이기고 올라온 백두산과 한라산팀이 맞붙어 대등한 경기를 펼쳤으나 결국 백두산팀이 우승했다. 북한말로 ‘제기던지기’인

피구 경기는 한라산팀의 우승. 개인별 경기로 열린 100M 달리기에서는 7살짜리 어린이와 정토회 대표 유수스님의 출진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외에도 줄다리기와 통일기원 박터트리기, 내 고향 맛 자랑, 이웃돕기 일일장터, 전통놀이마당, 얼굴그림 그리기 등이 열렸다. 한라산팀의 종합우승으로 끝난 체육대회 참가 소감을 묻자 함경북도 청진에서 아내와 딸과 함께 왔다는 김경식(가명, 56) 씨는 “이런 자리에 참석하면 사회생활에도 도움이 된다”면서도 “추석을 맞아 고향에 있는 친지 생각이 나기도 한다”며 어두운 얼굴을 보이기도 했다. 행사 후 유수 스님은 “내년부터는 북한 동포들이 주체가 된 큰잔치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바람을 내비쳤다. 남동우 기자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수지, 구강,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런 나눔 콜택시
1588-5532

서울대출신 공학도가 풀어낸 사주의 새로운 개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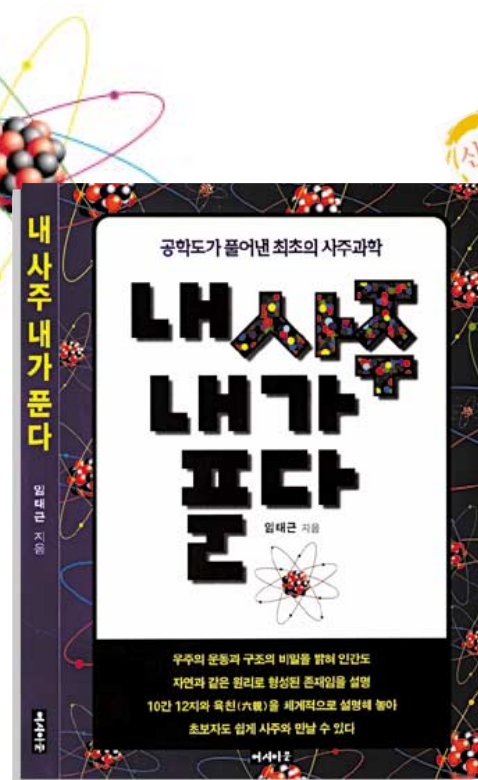
내사주 내가 풀다

10干 12支는 순환하는 우주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 甲木: 지표를 뚫고 나오는 힘
- 乙木: 옆으로도 퍼지는 힘
- 丙火: 밝게 빛나는 광선
- 丁火: 조용히 타오르는 불
- 戊土: 광활하고 거친 대지
- 己土: 부드럽고 낮은 땅
- 庚金: 거친 원광석
- 辛金: 정교하게 연단된 연장
- 壬水: 시원하게 흐르는 물
- 癸水: 이슬 같은 생명수
- 寅木: 햇살이 비치는 골짜기 숲
- 卯木: 꽃이 아름답게 핀 초원
- 辰土: 바깥은 건조하나 안은 습한 늪지
- 巳火: 화려하고 번성한 도심지
- 午火: 불꽃같은 정열의 장소
- 未土: 문화의 산물을 저장 및 중재하는 장소
- 申金: 물이 샘솟는 구획된 도시
- 酉金: 결실과 냉철함이 있는 곳
- 戌土: 낙엽 지고 메마른 땅
- 亥水: 생명이 숨쉬는 얇은 바다
- 子水: 고요하고 깊은 바다

- 부시美 대통령과 남북 정치인 3인의 운은? (실전풀이편에 소개)
- 육친(六親)만 알아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는지 밝혀낼 수 있다.

- ★ 이 책은 자연의 순환하는 관점에서 사주를 분석하고 팽창(木火)과 수축(金水)의 관점에서 중화용신(中和用神)을 설정하여 독자 스스로 운명을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사주는 조부모 부모 본인과 자식의 4대에 걸쳐 진행되는 대하드라마입니다.



임태근 지음 / 46배판 / 336면 / 값 12,000원